

# “U대회 특별법 독자입법 추진해야”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이하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U대회의 특성과 광주의 경제적인 여건 등을 감안해 독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U대회 특별법과 관련해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밝이 한 “2011년 대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2014년 천안시 경기대회 지원법”(이하 국제경기 지원법)에 U대회 지원법을 끼워넣는 개정안 보다는 광주 U대회 만을 위한 차별적이고 배타적인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문정 체육과학연구원 선임 연구원은 2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지원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입법방향’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광주 U대회의 성공적 개최,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를 주제로 열리는 이 토론회

## 오늘 DJ센터서 ‘광주U대회 지원법 제정’ 토론회

### ‘국제경기 지원법’과 병합 제정 땐 혼선 우려

는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지원법’(이하 U대회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 김영진(민주당)·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이 마련했다.

성 연구원은 “국제경기 지원법과 U대회 지원법을 병합·제정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3개의 행사가 있따라 혼선 우려가 있으며, 특히 각자 자체의 제정상황, 운영능력을 고려하지 않아 정부 지원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광주시의 재정 능력 등을 감안

한다면 병합 제정은 가장 경제해야 할 사안이다”며 “현재 제정 추진 중인 U대회 특별법이 국제 경기 지원법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 독자 지원법 제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기존 법률과 차별성을 갖도록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U대회 특별법’이 U대회를 통한 남북 단일팀 구성 등 체육교류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이 역대 스포츠 교류에서 정부 당국자간 직접 대화를 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법 조문에 협상 참구를 광주시, 정부가 아닌 광주 U대회

조직위에 맡기는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고했다.

이밖에 성 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독자적인 광주 U대회 지원위원회 구성, 수익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성과를 반영한 법률을 마련, 스포츠 인프라의 사후 활용 방안도 법안 제정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운석 광주시 경제부시장은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 성과와 과제’ 주제 발표에서 외국어 자원봉사자 육성, 국제적인 시민 마인드 향상 등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안종철 국가인권 위원회 본부장과 김철주 조선대 체육대학장, 이경수 광주 매일신문 부국장, 이희승 호남대 교수, 전호문 목포대 교수 등이 참석해 토론회를 했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우수’

### 전남도 인센티브 18억

전남도가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중점 추진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해 행정안전부 실적평가에서 최정 인센티브를 수상했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실적은 도 본청의 경우 2조9천483억원을 집행, 집행률 114.3%를 기록했으며 시·군을 포함한 전남도 전체의 경우 8조3천590억원을 집행해 전국 평균 집행률 106.8%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상 수상과 상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게 됐으며 장흥군 5억원, 학평군 2억5천만원, 강진·곡성·구례 각 2억원 등 도내 9개 단체가 우수단체로 선정돼 모두 18억원의 상사업비를 받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 현장과 시각 ■

### 박근혜 前 대표의 갈짓자 행보



지난 주 미디어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 과정에서 나타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 뒷 말이 무심하다. 그가 평소 강조하는 ‘원칙’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겨자게 일고 있는 것이다.

박 전 대표는 지난 19일 한나라당 안산수 원내대표가 직권상정 후 자신이 표결에 참여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참석하게 된다면 반대표를 행사하기 위해 참석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 시도에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도 박 전 대표는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며 여론 독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다.

하지만, 그는 지난 22일 강행 미디어법이 강행 처리될 때는 “이 정도면 국민이 공감해 주리라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안을 만들기 위해 당시 노력했다”고 말했다.

애초 자신 발언을 뒤집고 한나라당 최종 수정안이 나온지 24시간도 안돼 강행처리를 용인한 것이다. 더욱이 한나라당 최종안의 여론독과 문제 해결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우세하다.

이에 ‘박사모’ 회원 중 상당수가 실망감을 나타냈다. 미디어법 통과 직후 박 전 대표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비판글이 90%를 넘어서었다.

노용진씨는 “때리는 시엄보다는 말리는 시누가 더 맘다”고 했고, 한민숙씨는 “이런 게 원칙을 지키는 것인가요? 이게 진정 국민을 위하는 것인가요? 부끄럽습니다”고 했고, 김대연씨는 “이번 일로 가장 크게 실망했다”며 “자라리 처음부터 찬성했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실망감을 표출했다.

때문에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23일 긴급호소문에서 “어제와 오늘,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게시판을 보면서 저 역시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야당의 공격도 거셌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23일 “일제 박근혜 의원은 아주 참 기회주의적 처신에 능한 분인데 이번에도 말 바꾸기를 통해서 혼란한 기회주의의 처신을 해 가지고 그것이 아주 둔보인다”고 꼬집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박 의원은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혼령하는 것이다”라고 가세했다.

이같은 비판으로 이번 미디어법 통과의 최대 피해자는 ‘박근혜’라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법은 ‘박근혜법’으로도 불린다. 박 전 대표가 제안한 내용이 거의 반영됐기 때문이다. 결국, 박 전 대표는 애초 자신이 생각한 법안이 아니어서 잠시 ‘몽니’를 부린 끝이 됐다. 여야 합의 처리를 주장해 놓고도 자신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강행처리를 용인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보인 박 전 대표의 갈짓자 행보가 국민 지지를 1위를 달리고 있는 차기 대선주자답지 않은 ‘무책임’ 정치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다.

/jkpark@kwangju.co.kr

## 첨단의료복합단지 내달 선정

### 광주·전남 등 전국 10개 지자체 막판 유치전

광주시·전남도를 비롯해 전국 10개 지자체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치고 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선정이 내달 중순에 이뤄진다.

보건복지부가족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자료 정리작업이 마무리 단계’라며 “이번주에 작업이 끝나면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위원회 상정 일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을 당초 6월 말로 끝내겠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우수개발 지원설명 등 증빙자료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밟느라 한 달 넘게 미뤄져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평가자료가 완성되면 이를간의 현장조사, 2~3일간 전문가들의 합숙평가, 위원회 상정 등 일사천리로 일정이 진행될 것”이라며 “교수, 업계 관계자 등 240명의 평가단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끝난 상태”라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청주·전주시·광주·제주·부산·대구·울산·경남·경북·충북·충남·전남·전북·제주 등 1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작업을 펼쳐 가장

점수가 높은 곳을 사업지로 추천하게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로 ▲광주·전남 진공 산업단지 등 ▲서울 마곡택지개발지구 ▲인천 송도국제도시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부산·울산·경남 양산 ▲경원도 원주기 업도시 ▲대구·경북 신서혁신도시 ▲대전 대덕R&D특구 ▲충북 오송 생명과학단지 ▲충남 아산 인주산업지구 등 10곳이 접수돼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사업은 2038년 까지 5조6천억원(시설운영비 1조8천억원, 연구개발비 3조8천억원)을 투입,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등 100만㎡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한편, 광주시와 대구시는 2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양 지역의 의료산업 분야 원·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두 도시는 이 협약에 따라 의료연구개발 기관 간 교류 협력과 지역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 정책과제 발굴 등을 추진한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러시아군 상륙작전

26일 러시아 해군의 날을 맞아 블라디보스토크 해군 기지에서 수륙양용 전차부대가 상륙작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北, 美에 직접대화 타진”

### 日 언론 “국제압력 피하려”

북한은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제재 결의가 채택되는 등 포위망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함으로써 압력을 피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신문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 전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내에서는 북한측의 대화 요구에 응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벽과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에 6차회담 복귀를 촉구하면서 안이하게 대가를 제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강하다고 신문은 밝혔다.

신문은 또 다른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대화 요구에 대해 “과거에 압력을 피하는데 성공한 전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북한에 구속돼 있는 미국인 기자 2명의 석방 문제에 있어 미국측이 응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연수일정(2009년 제3기)

#### • 개강일시

월요일 오전반 2009. 9. 31(월) 9:10  
오후반 2009. 8. 31(월) 13:40

#### • 개강장소 :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8. 31(월)

#### • 수업기간

2009. 8. 31(월)~2010. 2. 8(월)  
(6개월/24주)

#### • 수 강 료 : ₩300,000

#### • 모 집 인 원 : 1단계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30명

####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오전반 9:10~13:00 오후반 12:40~17:30

#### •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사)한국국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회장 발급 자격증 취득기회 부여 (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원 및 학원개설 및 강사추천

각급학교(특기적성 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인한자급수 취득기회 부여(1급까지)

#### • 원서교부 및 접수처

전화 (062)530-3873~5

H.P 016-611-1171

광주은행: 074-107-004114(예금주: 전남대 평생교육원)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ttp://sle.jnu.ac.kr>

## 한문지도사자격 연수생모집

### 1. 연수일정 (2009년 제 9기)

#### 구 분

• 개강일시 금요일 2009. 9. 4(금) 09:10  
토요일 2009. 9. 5(토) 09:10

#### 모집기간

2009. 7. 23(목)~2009. 9. 5(토)

2009. 9. 4(금)~2010. 2. 27(토)

#### 수 강 료

₩298,000

• 모집인원 : 1단계 금요일/토요일 오전, 오후반 선착순 각 20명

• 수업시간 : 매주 금, 토 오전반 9:10~13:00

####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발급 수료증 수여

-한국대학 부설 평생교육원협의회장 자격증 취득기회부여(2단계 수료시)

-각 한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연수과정